

■ 지방선거 핫코너

정동채 '광주 발전 10대 공약' 발표

정동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9일 일자리 15만 개 창출을 위한 '광주발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차질 없는 조성 ▲문화관광공사 설립 ▲문화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 ▲광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창조적문화경제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또 ▲R&D(연구·개발) 특구의 차질 없는 조성 ▲광주~부산을 잇는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 ▲교육관련 예산 대폭 확대 ▲서민, 중산층, 소외계층 복지예산 대폭 확대 ▲광주공공비행장 이전 추진 등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문화를 살찌우고 대형 교육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광산업과 연구·개발 산업을 활성화해 시장 임기 4년 동안 1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원 3선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재 '신지식인' 교육인 부문 大賞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이 최근 국가와 광주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0 대한민국 신지식인 교육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40년간 초·중·고·대학 등 교육현장 전 과정에 재직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양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전 총장은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초대원장 및 직선 2대 총장, 전국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대표, 나주대학(현 고구려대학) 관선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시민단체, 장휘국씨 '시민후보' 추대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이 오는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 시민후보로 추대됐다.



2010년 광주시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는 9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시민후보 확정 전체회의를 갖고 "희망의 광주 교육 실현을 위해 장휘국 위원을 광주시교육감 시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장 위원은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을 거친 재선 교육위원으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국령에 '강진군수 출마' 선언

국령에 전남도의회는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받은 소통의 리더십으로 강진발전의 새판을 짜겠다"며 강진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국 의원은 "강진군은 외화내비의 어려운 지역경제와 인구고령화로 주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농어촌과 농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농어민은 각종 개발논리에 밀려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현장과 군민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는 군수가 필요한 때"라며 "20년간 쌓아온 지역개발·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이호준 '광주 남구청장 출마'

이호준 전 남구 부구청장은 9일 "40년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품격있는 남구를 건설하겠다"고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부구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운고가 철거로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고 효천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거환경정비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계관 방중...6자회담 재개 급물살 타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일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유관 당사국들의 성의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현지 지도 중이던 함남 함흥시에서 가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앞줄 왼쪽)과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북한의 지속된 의지를 되풀이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면서 "유관 당사국들이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기울이는 성의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사국들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9일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김 부상은 3박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왕자루이 부장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부상의 방중은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 당사국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방중한 것이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왕부장의 면담 소식을 보도하면서 왕 부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전서'를 전달했고, 김 위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일 함흥에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앞줄 왼쪽)과 만나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일 "북핵 당사국들 성의있는 노력이 중요"

왕자루이, 김정일 면담 때 후진타오 친서 전달

장은 후 주석에게 보내는 인사를 전달한 뒤 "친선적인 담화를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대화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왕 부장은 지난 2004년 1월 방북, 김 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2005년 2월, 2008년 1월, 2009년 1월 방북때도

빠짐없이 김 위원장을 만난 바 있다. 특히 그는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 질환에 발병 후 처음으로 접견한 외국 인사일 정도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김영일 노동당 국제 부장과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류사

오명 주북 중국 대사가 배석했으나 과거 고강제석자였던 강석주 외무성 제1 부상은 제외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핵이 핵 및 대미외교 총괄역인 강 제1부상을 제외한 것은 6자회담 등의 현안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서 "왕 부장의 방북은 새해 초마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북·중 당 대 당 차원의 친선의교인 만큼 북핵문제 등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렉서스·사이 생산 일시 중단

브레이크 결함 도요타 판매 중단도 검토

도요타자동차가 브레이크 결함 문제로 리콜 방침을 정한 하이브리드 차량 '사이(SAI)'와 렉서스 'HS250h'의 생산을 금주 말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는 브레이크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수정 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지는 생산 중단 기간은 적어도 1주일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감소는 두 차종을 합쳐서 2천대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차량은 자회사인 도요타자동차차유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도요타는 이들 차종에 대한 판매 중단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요타는 미국에서도 가속 페달 결함 문제로 8개 차종에 대해 일시 생산을 중단했다가 지난 8일부터 재개했다.

반면, 도요타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제기돼 리콜에 들어가는 프리우스의 경우 올 1월부터 생산한 차량은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한 만큼 별도의 생산이나 판매 중단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국내 모델인 사이는 지난해 12월 발매돼 그동안 7천700여대가 판

매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판한 HS 250h는 일본 국내에서 1만8천여대가 팔려나갔다.

사이와 HS250h는 프리우스와 같은 구조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지만 제어 프로그램이 달라서 소프트웨어 수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요타측은 소프트웨어 수정이 완료되면 이달 내로 리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요타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프리우스에 대해 9일 국토교통성에 리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도요타는 아울러 미국에서도 이날 중 같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도요타 캠리 급발진"

국내서 의심사례 신고

국내에서도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박모(64)씨는 지난달 11일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를 몰고 가던 중 동네 골목길에서 급작스런 굉음과 함께 차가 앞으로 돌진,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한국도요타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 사고로 박씨는 전치 3주 관정을 받았다. 박씨가 이 차를 구입한 지는 3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박씨는 당시 시속 5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요타 측은 현장을 조사했지만, 차량에는 결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Beotun Tyle' (벽돌타일) featuring images of the produc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eotun Tyle' (벽돌타일) and 'Beotun Tyle' (벽돌타일).

Advertisement for 'Helsking' (헬스킹) shoes,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text about the shoes' features and availability.